[기자체험기] 나와는 거리가 멀었던 탄력과 주름관리? 미리 준비하는 탄력크림

[김희옥 기자] “어머 이게 뭐야. 이거 언제 생겼지?”

20대, 피부가 건조해지고 당기면서 보습에만 목을 맸다. 하지만 30대, 어느 샌가 깊어진 눈가 주름, 눈에 띄게 선명해진 목주름에 충격에 빠지게 된다. 안티에이징은 중년에게나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후회스럽다.

사실 주름, 탄력 관리는 실제로 나타나기 전까진 소홀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사실은 20대에 들어서면 이미 노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늦어도 20대 중반부터는 미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후회하기 싫다면 말이다.

이에 젋은 날의 탄력본능을 되살리는 탄력 크림으로 프리메라의 신제품 ‘와일드 씨드 퍼밍 크림’을 선택했다. 주름과 탄력 뿐만 아니라 주름의 원인이 되는 건조함을 해결해주는 보습기능까지 다양하게 있어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중반의 뷰티에디터들이 직접 사용해 봤다.

제품 : 프리메라 ‘와일드 씨드 퍼밍 크림’

특징 : 항산화 선분을 함유한 희귀 복원종 콩인 납작콩(와일드 씨드) 에서 얻은 와일드 퍼밍™이 탄력개선에 도움을 준다

김희옥 (30대 중반)

(사진: 에디터 눈가 비포/애프터)

Q. 피부 타입 & 피부 고민

건성, 민감성 / 30대 중반에 들어 갑자기 눈가 주름이 깊어져 안티에이징과 피부 탄력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Q. 평소 주름, 탄력 케어는 어떻게 관리했는지

원래 주름은 없는 상태였고 건조함이 큰 고민이라 보습과 모공에만 신경을 썼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탄력을 잃은 피부에 아이크림의 지속적인 사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잘 실천하지 못했다. 이 제품은 아침, 저녁으로 얼굴, 목 부분까지 사용했다.

Q. 테스트 제품의 특별함을 꼽는다면

민감성이라 저자극 천연제품을 선호하는 편인데, 인공향, 합성색소, 무 동물성 원료, 무 광물성 오일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신뢰가 갓다. 특히 귀한 원료인 납작콩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Q. 텍스처 & 발림성

여느 탄력크림과는 다르게 부드러운 텍스쳐와 발림성을 지녔다. 부드럽게 발려 이내 피부에 윤기가도는 느낌을 받았다.

Q. 사용 후 잔여감 (흡수력)

흡수는 펴바르는 즉시 가볍게 스며들었으며 약간의 끈적임은 주름개선용 제품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제품치고 미미한 편이었다. 오히려 바른 직 후 피부가 쫀쫀하게 찰진 느낌이 들었다..

Q. 피부 변화

눈가의 잔주름이 희미해졌으며 입가, 볼 부분이 팽팽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단기간 사용으로도 깊은 주름은 더욱 사용해 봐야 하겠지만 피부탄력 부분에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영양, 보습에도 도움을 줘 피부에 윤기가 돌아 더욱 생기 있어 보였다.

Q. 제품에 대한 만족도

우선 가장 좋았던 것은 은은하고 후레쉬한 느낌을 줬던 향으로 인해 계속해 바르고 싶은 제품이었다. 또한 흡수력이 좋아 얇게 여러번 바를 수 있어 단기간 효과를 더욱 많이 봤던 것 같다. 민감성 피부에도 자극이 없어 추천한다.

Q. 총평

스킨케어 마무리 단계에 안티에이징 크림, 탄력크림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피부가 쳐지는 현상이 눈에 띄게 보이는 30대에게는 필수 아이템.

주름 ★★★★

탄력 ★★★★★↔

영양 ★★★

보습 ★★★

향 ★★★★★

**배계현, 30대 초반**

(사진: 에디터 볼 부분 비포/애프터, 크림제형)

Q. 피부 타입 & 피부 고민

겨울에는 악건성 피부로 심하게 건조하지만 여름에는 모공이 늘어나고 쳐져 피부가 전체적으로 탄력이 떨어진다. 각질이 잘 생기고 화이트헤드가 증가했다.

Q. 평소 주름, 탄력 케어는 어떻게 관리했는지

저녁 스킨케어 마무리 단계에서 아이크림을 눈가, 이마, 팔자주름 부위에 도톰하게 바르고 다른 부위에는 얇게 발라준다. 가끔 탄력 마스크팩을 하는 정도.

Q. 테스트 제품의 특별함을 꼽는다면

독특한 원료인 납작콩 성분이 눈에 띈다. 탄력 개선에 효과적인 자연 성분을 함유하여 기능에 믿음이 간다. 또한 인공향, 합성 색소, 동물성 원료, 광물성 오일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순한 브랜드라 보다 신뢰가 간다.

Q. 텍스처 & 발림성

얇고 부드럽게 발리지만 쫀쫀한 느낌이 강하게 든다. 제형은 부드러웠으나 피부에 닿는 순간 피부를 탄탄하게 잡아준다는 느낌이 들며 바른 직후 찰진 피부결을 느낄 수 있었다.

Q. 사용 후 잔여감 (흡수력)

피부에 겉돌지 않고 바로 흡수가 되며 유분감 없이 촉촉하게 마무리된다. 끈적거리는 잔여감 없이 부드럽게 흡수되어 피부결 정돈이 효과적이다.

Q. 피부 변화

팔자 주름 주위로 볼이 쳐져 보였는데 제품을 바를 때 볼을 올려주듯 발라주니 피부에 힘이 생긴 느낌이 들었다. 나비존 모공 요철이 눈에 띄었는데 다소 완화되고 매끄러운 피부결을 느낄 수 있었다.

Q. 제품에 대한 만족도

은은한 허브향이 기분 좋게 감싼다. 얇지만 쫀쫀하게 발리는 느낌이 즉각적으로 느껴지며 피부 탄력에 효과적인 것 같다. 적당한 수분감이 있어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해주고 피부결이 다소 개선됐음을 느꼈다.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피부 탄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Q. 총평

도톰하게 발라도 빠르게 흡수되어 무거운 느낌이 없다.

주름 ★★★

탄력 ★★★★★

영양 ★★★★

보습 ★★★★

향 ★★★★★

**박승현(20대 후반)**

(사진: 에디터 사진/ 도포 후 피부 윤기컷)

Q. 피부 타입 & 피부 고민

복합성 피부 타입으로 티존 부위는 지성이나 그 외의 부위는 건조한 편이다. 잦은 화장으로 피부가 예민한데 최근에는 환절기로 인해 피부 트러블이 올라와 흉이 남지 않을까 고민이 많다. 평소 수분 관리에 힘을 쓰는데 20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피부 탄력과 보습에 관심이 많아졌다.

Q. 평소 주름, 탄력 케어는 어떻게 관리했는지

평소 아이크림으로 눈가 주름은 관리를 하는 편이었는데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아 최근에는 수분 크림과 모공 관리 기초 케어 제품으로만 피부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보습이나 탄력에 대해 일시적인 관리가 가능한 마스크 팩보다는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제품에 관심이 많고 평소 잠들기 전에 수분 크림으로 탄력을 보충하기 위해 관리한다.

Q. 테스트 제품의 특별함을 꼽는다면

자연을 생각하는 브랜드의 특성 상 제품 패키지부터 실제 제품까지 친환경 화장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납작콩 성분에 발아 기술을 적용했다는 크림답게 인공적인 화장품의 향이 아니라서 더욱 마음에 들었다. 안티에이징 제품이면서 보습과 탄력 등 고효능 제품이기에 성분이 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주었기에 더욱 특별했다.

Q. 텍스처 & 발림성

무엇보다 프리메라 와일드 씨드 퍼밍 크림을 사용하며 가장 좋았던 부분이 바로 텍스처다. 복합성 피부이기 때문에 트러블도 쉽게 나는 편이고 안티에이징 제품 특유의 무거운 텍스처를 가진 제품은 잘 맞지 않아 쉽사리 제품을 선택하기가 어려웠는데 와일드 씨드 퍼밍 크림은 수분 크림처럼 촉촉한 텍스처로 피부 곳곳에 바르기가 용이했고 가벼운 마무리 감으로 부담이 적었다. 특히 제품 자체는 쫀쫀한 질감을 가지고 있지만 피부에 바르면 부드럽게 펴 바르기 쉬워 눈가, 팔자 주름 등 다양한 부위에 사용하기 더욱 좋았다.

Q. 사용 후 잔여감 (흡수력)

보통 아이크림 같은 안티에이징 제품의 경우 텍스처가 무거워 제품을 바르고 시간이 오래 지나도 흡수가 되지 않고 겉도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프리메라 와일드 씨드 퍼밍 크림의 경우는 가볍고 촉촉한 텍스처 때문에 피부에 몇 번 톡톡 두들겨 주면 흡수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기존의 안티에이징 제품 특유의 흡수가 느려 번들거리는 현상이 없었기 때문에 크림을 바르고 바로 잠자리에 들어도 부담이 없었다.

Q. 피부 변화

잠들기 전 눈가와 팔자주름 부분 그리고 목에 함께 사용을 했는데 특히 잔주름이 생기기 쉬운 눈가와 조금씩 주름이 깊어지고 있는 팔자 주름에 효과가 좋았다. 특히 팔자 주름 부분은 깊은 주름은 아직 있지만 피부가 힘 있게 쫀쫀해지면서 화장을 하고 나면 신경이 쓰였던 코와 입가 근처 잔주름들이 많이 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눈가 역시 촉촉한 수분감으로 인해 피부 결 자체가 부드러워지면서 잔주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Q. 제품에 대한 만족도

우선은 피부에 무리를 주는 인공적인 화장품이 아니란 것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납작콩 성분이라는 생소한 원료로 피부 건강을 지켜주고 나아가 탄력과 보습을 더해주는 안티에이징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만족스러웠다. 꾸준히 사용하기만 한다면 피부의 잔주름을 더욱 케어해 줄 수 있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쫀득하면서도 가벼운 텍스처로 매일 사용해도 피부에 부담감이 없다는 것이 가장 좋았다.

Q. 총평

예민하고 쉽게 트러블이 잘 생기는 피부였기 때문에 안티에이징 제품을 고르는데 있어 늘 신중함이 필수였는데 동물성 원료나 합성색소가 들어가지 않아 피부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좋았다.

주름 ★★★★★

탄력 ★★★★

영양 ★★★

보습 ★★★★

향 ★★★★★